

2012년 8월 19일, 모곡 '참 제자 마을' 성모님 동상이 축성되었습니다.



조각을 시작한 것이 20 여년 되었으나, 성상을 제작하는 일은 '감히 어떻게 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제게, 「가톨릭대학교 150 주년 기념 피정」은 제 작품에 변화를 줄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구요비 신부님을 처음 뵈게 되었는데, 신부님께서서는 인자하신 하느님의 모습으로 피정 중 제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 인연으로 따뜻한 마음의 '참 제자 모임'과 프라도회의 정신을 알게 되었고, 모곡 피정의 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006 년 서강대학교 손병두 총장님과의 시작으로 제작되게 된 2 미터 크기의 '루르드의 성모님'을, 우여곡절 끝에 모곡의 성모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제겐 '성모상이 쉽게 만들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 성모님이 오시고 싶어 하셨던 곳이 따로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모님의 모습은 여러 자료와 메시지를 섭렵하며 묵상하면서, '한국인의 어머니' 모습으로 제작해 보고 싶었습니다. 내 곁에서 모든 애기들을 들어주시는 우리 어머니의 넉넉함과 따뜻함,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얼굴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 가톨릭출판사에서 발행한 <루르드의 성녀 벨라뎃다>의 증언에 따른 성모님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발까지 내려온 흰 드레스를 입고 있어서 발끝만 조금 보였고, 목에는 끈이 달린 레이스를 두르고 있었으며, 머리에는 어깨와 팔까지 덮는 베일을 쓰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발끝에는 노란 장미가 있었고, 허리에는 무릎까지 내려뜨린 하늘색 띠를 매고 있었습니다. 목주의 줄은 노란색인데 목주알은 하얗고 커다랬습니다. ...오른 팔에는 목주를 걸고 있었습니다. (pp.94-95)

성모님을 뵈는 여러분들께, 각자의 '신앙의 숨결'을 느끼시게 되길 기도합니다.

- 세실조형연구소 조각가 손 미경 세실리아 -

모곡에서 다시 만난 성모님

신 경미 켜마

내가 '참 제자 모임'에 슬쩍 얼굴을 비친지 어느덧 7년이 되어 간다.

신학교 수덕관에서 첫 대면을 한 '참 제자 모임'은, 나와 관계가 없는 듯 혹은 관계가 있는 듯한 시간 속에서, 이제는 모곡의 '참 제자 마을'이 되어 만나고 있다.

많은 이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모습을 갖추게 된 '참 제자 마을'.

이 마을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지...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은 입구에 들어서며 우리를 맞아주시는 성모님이다.

나는 몇 년 전에 전시회에서 이 성모님을 만난 적이 있다. 그때는 그저 온화하고 고운 성모님이구나 하는 느낌이었다.

모곡 마당에서 다시 만난 성모님은 브론즈 색으로 다시 옷을 갈아입고 당당히 서 계셨다.

넉넉한 몸매에 품위 있는 겸손한 몸짓의 성모님의 얼굴은, 내가 처음 보는 성모님의 얼굴이었다. 살짝 웃는 듯 마는 듯한 표정에 멀리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눈은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떤 어려움도 나의 하느님만 바라보면 아무 문제없다는 확신에 찬 눈동자는, 나도 모르게 "엄마"하고 부르게 했다. 그 모습은, 아마도 작가를 지켜주고 계신 엄마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성모님의 왼쪽으로 길을 올라서면 십자가의 길이 있다. 처음 본 날, 홀로 십자가의 길을 하고 싶어서 올라가다, '땀이 나온다'는 말에 1 처에서 살짝 작품만 곁눈질하고 내려왔다. '작품이 작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그 다음 모곡 방문 때는 함께 간 자매님들과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 1 처... 2 처... 3 처... 기도를 주거나 받거나 하며, 강약을 보여주는 부조 형태의 작품을 목상했다.

4 처에서 만난 성모님! 초롱초롱하게 빛나던 성모님의 눈은 놀라움과 안타까움으로 더욱 커지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계셨다. 너무나 현실적인 표현이었다. 아들의 참혹한 모습에, 터져 나오는 비명을 막으며, 숨도 못 쉬고,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어미의 안타까운 마음... 나는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듯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미혼인 작가가 어쩌면 이렇게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을까...

5 처에서 키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을 받은 예수님... 시몬의 부축을 받으신 예수님의 한쪽 손은 시몬의 어깨를 감싸고 계셨다. 다른 십자가의 길에서 한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다. 그 손에서 나는 고마움과 위로를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다.

그 길을 우리는 눈물과 웃음을 지으며 올라갔다. 예수님의 두 번째 넘어지심이었던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넘어지시면서 손을 우리에게 뻗고 계신다. 유난히 앞으로 튀어 나오게 표현한 손을 나는 무릎을 꿇고 꼭 잡았다. 당신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나의 힘듦에 손 내밀어 주시는 사랑을 느끼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예정하지 않았으나 당연한 듯이 생긴 15 처 자리의 빈 무덤... 십자가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돌판만 있는 빈 무덤 앞에서 생각했다. 내 마음도 그 빈 무덤처럼 만들어야 함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나...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 여기...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미하며 십자가의 길을 내려왔다.

씩씩하고 우아한 성모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변함 없는 믿음으로! 아멘.

이번 소식지 19호부터, 슈브리에 신부님의 ‘생애와 영성’ 관련 글들을 연재합니다.

<<슈브리에 신부의 생애>> 머리말 (*요약 정리, 보완)

-장 프랑수아 식스-

19세기와 20세기는,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전통적 농업사회가 새로운 산업사회로 급격하게 바뀌어 가면서, 수많은 공허한 환상들이 판을 치던 시절이었다. 그런 속에서, 자신들의 생활로써 ‘현실은 관념 이상의 것’임을 몸으로 보여 주신 분들이 계셨다. 앙트완느 슈브리에(Antoine Chevrier, 1826-1879) 신부는 그런 분이셨다.

19세기 중반 프랑스 제2의 도시 리옹에서 사제가 된다는 것은 어느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것을 뜻했지만, 혁명적인 데라고는 전혀 없는 슈브리에 신부는 이를 기피하였다. 당시 리옹 교구의 사제들에게는 방해꾼이기도 했는데, 자신들처럼 생활하기보다는, 리옹 근교의 하층민에, 비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따라가기 때문이었다. 집단적인 파견에 더 익숙한 선교사들에게도 그는 상식을 벗어난 기인으로 보였는데, 남의 시선을 끄는 화려한 수단이 아닌, 그저 일상의 순박한 복음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의 회개를 도왔기 때문이다.

당시 성직자 집단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틀을 거부하려 했으므로, 슈브리에 신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해야 했다. 그 무기는 이전에는 아씨시의 프란치스코가, 또 그 이후로는 요한 23세가 사용했던, 인내, 화합, 친절, 자애, 온유, 그리고 끈기 있는 부드러움 같은 덕목들이었다.

그 싸움에서 슈브리에 신부를 지탱해 준 것은, 그가 진실로 가난한 이라고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충실이었고, 모든 불행한 이들에 대한 조건 없는 충실이었다.

슈브리에 신부가 섬기고자 했던 주인은 가난한 그리스도였다. 그가 구현하고자 했던 세계는, 약한 이, 비천한 이, 가난한 이의 세계이자, ‘형제애와 사랑의 세계’였다.

‘프라도회’를 창립한 슈브리에 신부는, 그룹의 상태를 알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이 속한 그룹 자체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했다. 확고한 조직력을 믿는 방식을 선택하기보다, 보잘 것 없는 일상적인 일의 힘을 믿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19년 동안 이 방법을, 더디기는 하지만 충실하게 실행하였다.

슈브리에 신부는, 당시 주변 사람들이 ‘수완이 있다’고 보지는 않았던 것처럼, 대단한 역량을 지닌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었으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세상 사람들, 특히 가난한 이들과 비그리스도교인들에 대한 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슈브리에 신부는 대단한 정신력도, 큰 이상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눈에 띄지 않는 존재이자,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 그런 ‘특징’ 없는 사람이었다. 곧, 자신을 전혀 내세우지 않았던 그의 그러한 생애를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그가 그 시대와 오늘날에 어떤 점에서 예언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슈브리에 신부는, 위대한 인간 또는 뛰어난 스승처럼, 모방해야 할 모범이 아니었다. 그 자신이 모방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리옹 외곽에 있는 교회에 파견되어, 거기서 가난한 이들의 세계를 발견하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알리고 했다. 새로이 알게 된 이 세계 앞에서, 슈브리에 신부가 스스로 묻고 얻은 결과는 훌륭한 해답도, 사업도 아니었고, 그저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따라 사는 것이었다.

슈브리에 신부는 ‘본다’는 것과 ‘산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는 그저 자신의 운명을 떠맡고 있는 가난하고 비천하게 보이는 이들의 세계에 속해 있었다. 농민들로부터는 확고한 현실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육체 노동자들부터는 일상 생활에서 진실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배웠다.

되돌아 보면, 슈브리에 신부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강력한 일상적인 양식(良識)으로써 복음적인 생활을 진실하게 했다. 그러한 슈브리에 신부의 생애는 사제들이나 평신도들,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오늘날의 삶에 어떤 빛을 던져 줄 수 있을 것이다.

<*장 프랑수아 식스는 ‘미션 드 프랑스(노동사제운동 단체)’의 사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위 책은 역사학박사 학위논문>

*** 2012년 8월 후원 봉헌금 현황 ***

8월 기존회원 76명, 신입회원 10명, 합계 16,836,800원

<참 제자 마을 후원 봉헌자 명단>

2012년 8월 신입 : 김용기, 박형욱 미카엘-박난숙 미카엘라, 오형진 올리안나, 이정희 마리안나, 이주형 올리안나, 임순임 엘리사벳, 정기철 스테파노-김봉순 베로니카, 홍임순 마더데레사 <이상 10인>

성물 봉헌: 김용기, 박형욱 미카엘-박난숙 미카엘라, 이정희 마리안나 <이상 4인>

<대단히 감사합니다>

- * 피정의 집이 완공되었으나, 아직도 2억 6천 만원 정도의 대출금이 남아 있고, 필수적인 추가 공사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봉헌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위 분들께 신규회원 가입 및 봉헌을 적극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구 요비(옴) 사제 서품 30주년 글 모음 '복음 우리의 길'을 17,000원(30% 할인가)에 공급합니다.
- * 모곡 '참 제자 마을 피정의 집'에 필요한 성물 봉헌자를 찾고 있습니다.

- * 2011년 10월부터 구좌 회원제로 전환하고(1구좌당 월 10,000원), 참 제자 마을 2단계 사업인 '피정의 집' 건립을 위한 후원 봉헌금을, 일시금 납부, 약정 납부, 구좌 납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후원 구좌 번호

1002-641-017945 우리은행 양업문화 참제자마을
031601-04-164956 국민은행 양업문화참제자마을
01168-12-001493 신용협동조합 양업문화교육원

<연락처> 전화; 02-853-1104-5 팩스; 02-853-1105
핸드폰; 011-9917-4523

E-Mail : kujob@catholic.ac.kr

참 제자 마을 피정의 집 전화 ; 070-8845-1004

<양업문화교육원 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yanguptown>

- * 슈브리에 신부님의 시성을 위한 '구일 기도' 요청
'복자 앙트완느 슈브리에 신부와 함께 바치는 구일 기도'를, 형제-자매님들께서 함께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 참 제자 마을의 목표

강원도 홍천 '피정의 집'을 중심으로, 복음 말씀에 따라,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웃들과 함께, 가톨릭 신앙의 깊은 영성을, 슈브리에 신부님의 길을 본받아 살 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는, 건강한 공동체

* 참 제자 마을의 영성 :

삼위일체 신비와 복음적 가난의 실천

- 자기 비움
- 천교의 정신
- 가난의 정신
- 봉사의 정신
- 공동체적 영성의 삶

* 사업 방향 및 목적

- **피정의 집** ; 머무르고, 쉬고, 기도하고, 배우며, 천교를 나누는 공동체적 나눔터.
- **쉼터 - 나눔의 집** ;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위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터
- **돌봄과 나눔의 영성적 녹지 공간** ; 하느님이 주신 자연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배움의 터이자, 순수 자연 속의 묵상의 터.
참제자 마을 생산 농산물의 나눔과 축제의 터

* 매일 12시 정오

참 제자 회원 모두가 삼종기도, 참 제자 마을 조성을 위한 기도,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 * 매 주일마다, 모곡 참 제자 마을 피정의 집 경당에서 11시 주일미사가 봉헌됩니다.

* 참 제자 마을 '피정의 집' 축성 및 봉헌 미사

8 월 19 일 11 시 프라도회 로베르 다비오 총장님, 조세 아리스테오 부총장님, 교황대사관 1 등참사관 줄리엔 카보레 몬시뇰님, 김득권, 김영남, 구요비, 김현준(미원 본당) 신부님 등 9 분 사제님, 내외 귀빈 등 230 여명의 형제 자매님이 참여, 성모상, 14 처, 경당 축성식 및 '피정의 집' 봉헌미사를 드렸습니다.

* 모곡 참 제자 마을 피정의 집 대중교통 이용 안내

용산(7:00)-청량리(7:20)-청평(7:50) ATX 열차는 용산역에서 매 시간, 청평버스터미널(6:40, 8:10, 13:40, 17:50)-모곡 한서중학교까지는 40 분 정도 걸립니다. 잠실-설악(07:10, 08:00, 08:40, 09:45, 7000 번), 청량리-설악 or 유명산(8:10, 9:10, 8004, 8005 번) 직행 버스를 타시면, 설악에서 모곡 피정의 집까지 택시를(2 만원)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 '참제자마을' 암반 지하수, 3 번째 수질검사 결과 '합격'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소 검사 결과, 46 항목 모두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 10 월 21 일(일) 모곡 피정의 집, '고구마 축제' 행사

10 시 30 분부터 묵주기도-미사-식사-십자가의 길-갯나무숲 체험-고구마 축제 순서로 진행됩니다.

- * 내년 7 월, 리용 등 유럽 성지순례 기획 중.

관심 있으신 형제자매님들의 적극 참여를 바랍니다.